

일동지역 친선축구대회

스포츠 정신 고취, 친선도모의 場 마련



일동축구회(회장 권경남)가 주최하는 제18회직장및단체별친선축구대회가 지난 10일 일동종합고등학교, 일동초등학교, 운담초등학교 운동장 등 3곳에서 1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일동축구회(회장 권경남)가 주최하는 제18회직장및단체별친선축구대회가 지난 10일 일동종합고등학교, 일동초등학교, 운담초등학교 운동장 등 3곳에서 1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일동면과 일동면체육회, 일동청년회가 후원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관내 직장 및 단체에게 스포츠정신 고취 및 체육 향상을 물론 지방체육의 저변확대 및 친선도모,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 기풍 조성을 목적으로 18회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145정보대, 일동축구회, 운담축구회, 신병교육대, 일육회,

베어크리크, 한울타리, 일동레이크, 일동청년회, 천보(85정보대), 중기연합, 105통신단, 청솔(10연대), 일동의용소방대, 일동농협, 일동축협(황소), 일동택시부, 화현태를 팀들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 개최식에서 대회장 권경남 일동축구회장은 "오늘 경기가 일동면의 단합과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수 여러분들께서는 장정당당히 경기에 임해 선의의 경쟁과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운중 포천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일동면의 파이팅을 외치며 오늘 대회가 건강증진은 물론 면민 화합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결과는 ▶우승 운담축구회 ▶준우승 145정보대 ▶공동3위 일동의용소방대 · 105통신단 ▶최우수선수상 조영팔(145정보대장)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중앙부처와 축구 통한 友情과시

자작FC 창립 9주년 기념 친선축구대회

포천시 자작 FC(회장 남병두)는 창립 9주년 기념 및 중앙부처초청 친선축구대회를 지난 3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자작 FC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축구대회는 자작FC와 2002년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중앙부처 축구연합회(회장 문찬두 특허청 국장)와 의신기자클럽 축구단(단장 이병중), 포천시청 축구동호회(회장 장금태), 번외경기를 치른 의왕시 여성축구단(회장 고명실), 포천시 여성축구단(회장 이정숙)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박상욱 포천시축구협회 회장 등 축구협회 관계자와 김영주 국제심판, 김희태 축구센터 김희태 이사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경기는 ▶1위 중앙부처 축구연합회 ▶2위 의신기자클럽 축구단 ▶3위 포천시청 축구동호회 순으로

순위를 차지했으며 각각 트로피와 축구공 3개, 막걸리 1말씩이 주어졌다.

한편 번외 경기로 치러진 여성축구대회는 포천시 여성축구단이 우세속에 의왕시 여성축구단을 1대0으로 이겼다.

특히 "발대식을 갖지도 못한 채 경기에 최선을 다해준 포천시 여성축구단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자작FC와 중앙부처 축구연합회 회원들이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마치고 함께 했다.

탐방 | 지역체육회 ⑦ 선단동체육회 회장 이천목

종목별 감독 선임 체육활성화 도모



이천목 회장 선단동 체육회

선단동 체육회는 2003년 10월 19일 포천군의 시승격과 동시에 포천동과 선단동으로 나뉘게 되면서 창립했다.

선단동 체육회의 초대 회장은 서장원(전 포천시의회 의원)씨가 역임했으며, 현재는 2005년 5월 체육회장에 취임한 이천목(50·사진) 회장이 선단동체육회를 이끌고 있다.

이천목 회장으로서는 타 지역체육회와의 차별성을 두고 동민경기대회 및 인라인스케이트대회 등 중·장년층의

참여와 젊은 층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선단동 체육회의 발전상과 현황을 들었다.

이천목 회장은 현재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단동 체육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이장 등이 포함된 단원직 이사 20명 등 회원 82명이 구성돼 있다.

이 회장은 "체육회가 포천동과 분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체육이 아직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다"며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생활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설운동 비위생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한 체육공원이 다음 달 준공예정이라 마비지 공사를 벌이고 있어 이 시설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 "이 체육공원에는 축구장 1면과

게이트볼장 1면 등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돼 선단동 주민들의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여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선단동의 체육시설은 대진대학교 운동장, 선단초등학교 운동장이 전부이고 현재 자작1동의 게이트볼장 2면과 설운동 체육공원의 게이트볼장 1면, 축구장 1면이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이 회장은 선단동의 체육여건에 대해 "현재 배드민턴의 경우는 공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고, 학교시설 또한 충분치 않아 활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체육공원과 더불어 실내체육관의 건립도 적극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게 된다면 배드민턴과 배구 등 실내종목의 육성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앞으로 완공될 시설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각종 종목에 관심이 높고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한 9명의 종목별 감독을 선임 종목별 동호회 활동을 적극지원·장려토록 추진하고 있다"며 "체육시설 완공시 준공을 기념해 지역체육인들의 체육대회를 개최해 시설활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선단동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의 지원에도 도움을 펼치고 있다.

이 회장은 "관내에 선단초등학교 1개소가 있어 축구부에 약간의 지원과 겨울방학중 진행된 씨름학교(장종택 감독)에 경비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단동 체육회는 지난해 6월 개최된 제1회 동민경기대회 및 인라인 스케이트대회를 올해 경기 대회만 개최하고 인라인대회는 X-Game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올해 8월 경 선단동과 젊은층이 함께하는 대규모 X-Game을 개최할 예정이다"며 "이 대회를 통해 포천의 스포츠 문화가 가일층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단동 체육회의 2005년 계획은 ▶경기 및 임시총회(1월, 7월) ▶제2회 동민경기대회(6월) ▶선단포천체육회장기 축구대회(3월) ▶시민의날 문화 및 체육행사(10월) ▶체육회 하계수련대회(8월)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8 육상경기연맹 이민형 회장

고교팀 창단으로 進路 보장해야



이민형 회장 육상경기연맹

포천시육상경기연맹(회장 이민형)은 ▶2000년 포천시체육회 회원단체 등록 ▶2001년 경기도육상연맹 가맹승인 ▶2002년 육상경기연맹 임원위촉 ▶2002년 포천시체육회 가맹단체 인증 ▶2003년 육상경기연맹 총회 ▶2003년 육상연맹회 가입신청 ▶2004년 육상연맹회 가맹단체 인증을 통해 현재까지 이르렀다.

초대 최병찬 회장 재임 시절 부회장을 역임하고 2002년부터 포천시육상경기연맹을 맡아 운영중인 이민형(49·사진) 회장은 "육상연맹의 현황과 발전상을 들었다."

비인기 종목이지만 모든 체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육상종목을 불사의 마음으로 운영해야겠다는 취지에서 회장직을 수락했다는 이민형 회장은 현재 경기가 스포츠산업진흥회와 대창아스콘주식회사, (주)한대개발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상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천시육상경기연맹의 조직현황은 회장 1명, 고문 3명, 부회장 7명, 감사 1명, 이사회 20명, 20명의 운영진이 구성돼 있으며 포천시청 육상실업팀과 엘리트체육지원, 관내 각종 육상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민형 회장은 "육상은 체육종목 중 가장 기초이며 중요한 종목이지만 사회적으로 비인기 종목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포천에도 육상 동호인이 마라톤에 300여명 등 총 2천여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대회 및 경기도 대회 등에 출전할 수 있는 엘리트 선수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연계교육체제에 대해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의 관주도의 체육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해 엘리트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송우초등학교와 갈월중학교의 육상부선수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해 포천시청 육상팀 등 실업팀과 연계되는 등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육상부 창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이 회장의 육상에 대한 열정은 소리없는 투자로 부터 시작된다.

"육상의 특성상 비인기 종목이고, 포천출신 스타 선수의 부재가 선수들의 이탈을 촉발시키는 주요 인자"라며 "포천의 육상이 자립될 때까지는 몇몇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개탄했다.

한편 "육상이 지난해 맹을 맡아 운영중인 이민형(49·사진) 회장으로부터 포천 육상의 현황과 발전상을 들었다."

비인기 종목이지만 모든 체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육상종목을 불사의 마음으로 운영해야겠다는 취지에서 회장직을 수락했다는 이민형 회장은 현재 경기가 스포츠산업진흥회와 대창아스콘주식회사, (주)한대개발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상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천시육상경기연맹의 조직현황은 회장 1명, 고문 3명, 부회장 7명, 감사 1명, 이사회 20명, 20명의 운영진이 구성돼 있으며 포천시청 육상실업팀과 엘리트체육지원, 관내 각종 육상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민형 회장은 "육상은 체육종목 중 가장 기초이며 중요한 종목이지만 사회적으로 비인기 종목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포천에도 육상 동호인이 마라톤에 300여명 등 총 2천여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대회 및 경기도 대회 등에 출전할 수 있는 엘리트 선수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연계교육체제에 대해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의 관주도의 체육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해 엘리트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송우초등학교와 갈월중학교의 육상부선수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해 포천시청 육상팀 등 실업팀과 연계되는 등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육상경기연맹 오대근 전무이사(사진 왼쪽 첫번째)와 포천시청 실업팀 코치 및 선수단.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 생산품목

-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 커피봉투류, 각종 오일팩류
-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 낙시용품 포장지류

★ 용도

-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 축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 가공제품

- 스탠딩삼방, M자가공
-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포장기 생산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풍산그라비아는 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